

미·이라크 전쟁 시기에 나타난 복고풍 경향의 토탈 패션 연구

석은경*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Retro가 과거 유행된 스타일의 재현된 양식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면, 과거의 스타일을 받아들여 현재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낸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들의 반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향장미용문화라 함은 단순한 화장품과 화장만의 의미 외에도 그 시대와 문화를 대변하는 패션, 헤어 스타일, 성형술, 피부미용, 네일 아트 등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변화시키는 정서이며, 인간의 사회, 문화적 산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트로로 되는 유행이 40년이라는 말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2000년대 미·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향장미용문화와 베트남 전쟁시기인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의 향장미용문화를 연구해 봄으로써 전쟁이라는 사회, 문화적 이슈가 어떠한 현상으로 레트로의 재등장을 가져왔는지를 입증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패션이 사회를 반영 한다'라고 했을 때 패션의 일부인 미용문화 또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 무관하지 않다.

패션을 포함한 향장미용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표현하는 인간의 가치와 사고의 시각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내용으로는 선행된 미용관련 논문과 서적을 통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이후 S/S 컬렉션과 F/W 컬렉션 등을 통하여 패션과 헤어 트렌드, 화장법 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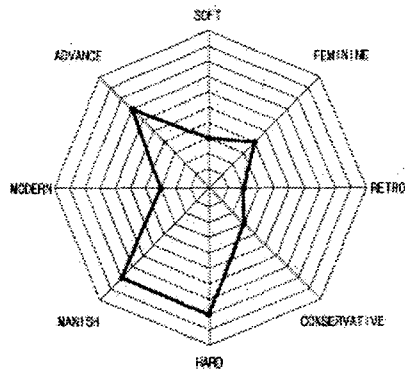
미·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2000년대 최근 몇 해 동안 반복되어오던 불안한 사회현상과 경제의 불투명성은 여성의 향장미용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 기성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했던 히피스타일이 향장미용문화에 미친 영향과 미·이라크 전쟁을 전, 후하여 나타난 Retro 경향의 네오-히피스타일의 유행현상을 연구해 봄으로써 2000년대 향장미용문화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 유행의 주기적 순환을 알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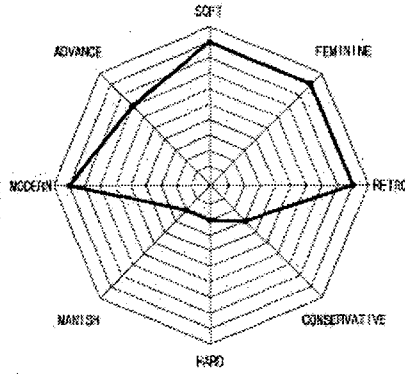
이에, Retro 경향에 따른 향장미용문화에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9.11테러와 미·이라크전쟁은 현대인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옛것의 향수와 동경을 가지고 과거를 향한 복고적 감성이 재현되는 현상이 향장미용문화에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다시 리바이벌되어 나타나고 있는 Retro 스타일은 <표1>과 <표2>에서 나타난 차이와 같이 베트남 전쟁시기인 60, 70년대 스타일의 변함없는 모방양식이 아닌 보다 여성적이고 미학적이며, 모던한 감각으로 향장미용문화에 다양성의 개념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표현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 Corresponding author: ek98suk@hotmail.com



< 베트남 전쟁시기의 향장미용문화 SENSE POSITIONING MAP >



< 미·이라크 전쟁시기의 향장미용문화 SENSE POSITIONING MAP >

또한 레트로 경향에 나타난 40년 순환의 유행현상은, 옛것의 무조건적인 모방이 아닌, 현재의 새로운 미적요소와 더불어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 사회 문화적 변화에 의해 계속 발전되어 가는 인간의 역사적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